

JAPAN

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JAPAN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일본 뮤지컬 마켓과 K-MUSICAL 동향』

◎ 작성취지

- 2010년 이후 한국 뮤지컬의 매력이 일본에 조금씩 침투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일본의 뮤지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음.
- 지난 4월 25일에는 일본의 대형 연예프로덕션인 아뮤즈가 도쿄 롯본기에 아뮤즈 뮤지컬 씨어터를 오픈하고 ‘카페인’ 을 시작으로 약 1년 동안 10편의 한국 뮤지컬을 공연할 예정임.
- 일본의 뮤지컬 시장 현황과 주요 플레이어 및 최근의 K-MUSICAL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뮤지컬의 보다 정치하고 효과적인 일본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

※ 출처 : 디지털 콘텐츠백서 2012, 2012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조사레포트, 한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자료집(2013.4.25.), 각사 홈페이지 자료등

◎ 작성순서

1. 일본의 뮤지컬 마켓
2. 일본의 뮤지컬 컴퍼니
3. K-MUSICAL 동향

1. 일본의 뮤지컬 마켓

■ 일본의 뮤지컬 시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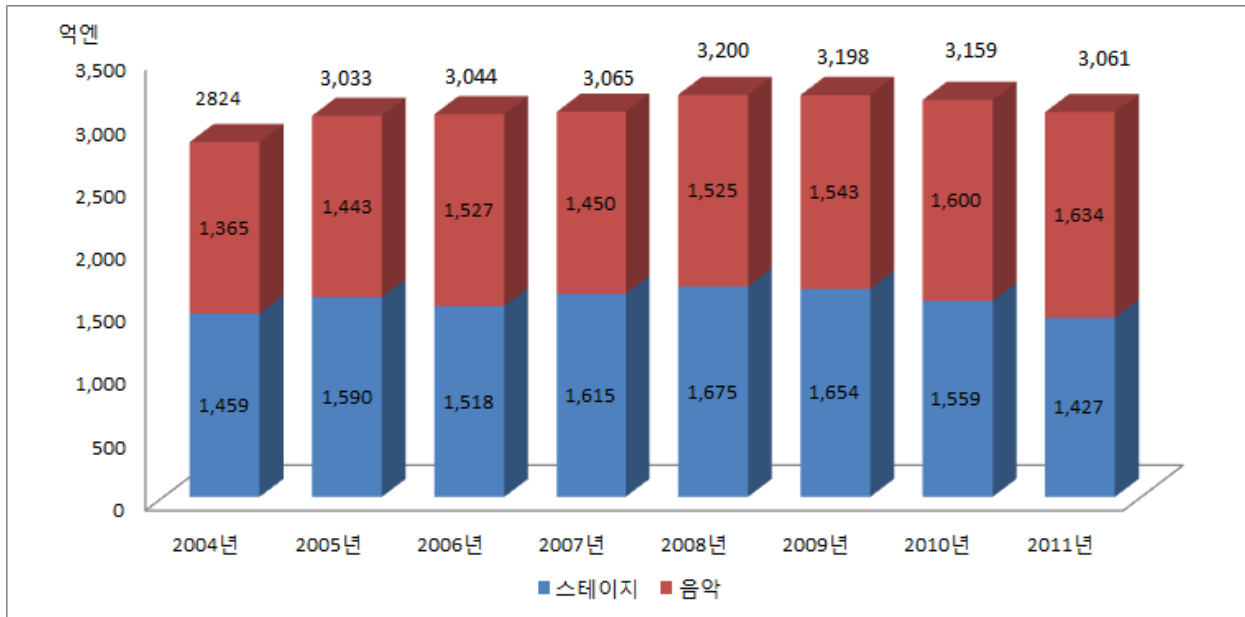
○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시장

- 일본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2011년도 기준 3,061억 엔을 기록, 전년대비 3.1% 감소했음.
-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스테이지가 1,427억 엔, 음악라이브가

1,634억 엔으로 구성됨. 스테이지 시장은 2010년보다 마이너스 8.5% 감소했으나 음악라이브 시장은 2010년보다 2.1% 증가했음.

- 음악 라이브 시장은 2007년 이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스테이지 시장은 2008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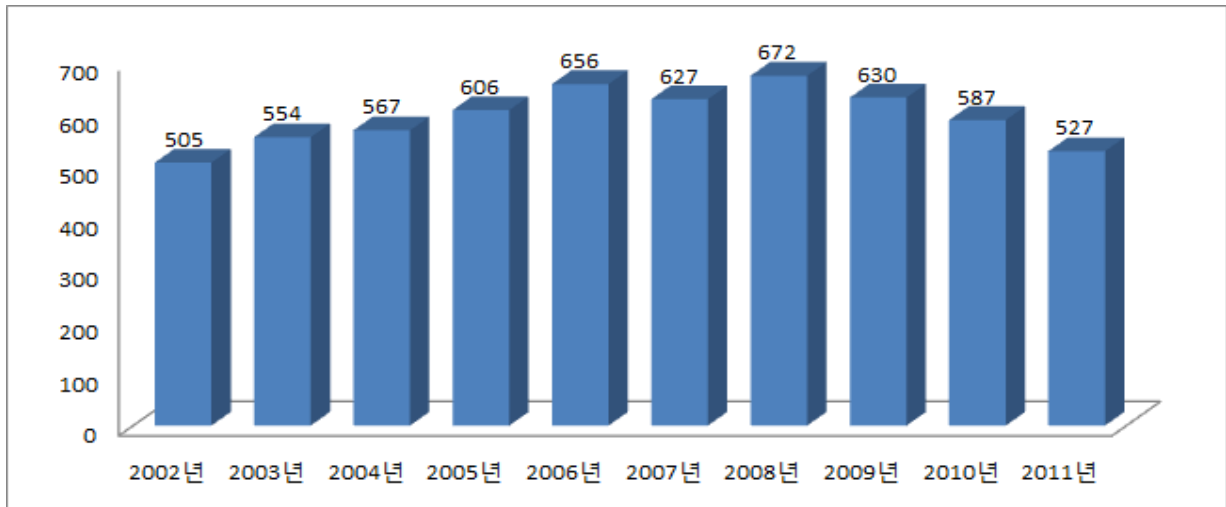
■ 그림 1 ■ 일본 뮤지컬 시장 규모의 추이



○ 뮤지컬 시장규모

- 스테이지 시장은 연극, 코미디등, 퍼포먼스등, 뮤지컬, 가부기/능/광연, 발레/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스테이지 시장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은 뮤지컬임. 2011년도 뮤지컬 시장은 527억 엔을 기록, 다만 전년대비 10.1% 감소했음.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내 공연은 물론 특히 방일공연도 연기 및 취소된 것이 감소의 주요 원인임. 우리의 뮤지컬 시장(약 3,000억원)보다 약 2배를 밑도는 규모임.
- 참고로 2011년도 퍼포먼스 시장(논버벌, 판토마임, 아이스쇼, 매직쇼 등)은 전년대비 10.4%가 감소한 231억 엔을 기록. 2009년은 283억 엔, 2010년은 258억 엔으로 3년 연속 감소를 보임.

■ 그림 2 ■ 일본 뮤지컬 시장 규모의 추이



단위 : 억 엔

출처 : 2012 디지털콘텐츠 백서

○ 뮤지컬 시장의 특징

- 일본내 뮤지컬은 창작 뮤지컬보다 해외라이선스 뮤지컬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¹⁾.
- 일본의 뮤지컬 시장은 극단시키, 다카라즈카, 후루사토캐러반, 음악좌 뮤지컬/R컴퍼니 등으로 대표되는 극단 스타일과 도호, 호리프로 등의 제작사에 의한 프로듀스 스타일이 혼재하고 있음. 또한 제작의 대부분이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권(다카라즈카 가극단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극장계약은 주단위, 월단위가 많지만, 매월 작품이 교체되는 레퍼토리 상연이 다수로 전용극장을 가진 극단시키 이외는 롱런 상연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아무리 히트하더라도 1개월 정도에서 공연이 끝나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인기작품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기 어려운 형태임.
- 공연을 계속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도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객력을 기대할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기존 스타를 중심으로 한 작품을 공연하게 됨.
- 극단시키, 다카라즈카 가극단, 도호뮤지컬 3강이 약 80%를 차지하고

1) 중앙일보 2012년 11월 22일자

있는 구조임²⁾.

※극단시키 202억 엔(2010년 12월), 다카라즈카 가극 258억 엔(2012년 3월기), 도호 약 128억 엔(출처: 주식회사 피아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조사부, 사사이 유코)

- 주식회사 피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 흥행 1위는 극단시키의 ‘라이온 킹’ 으로 67.3만 명, 2위가 극단시키의 ‘미녀와 야수’ 40만명 등의 순으로 이어짐.
- 흥행규모랭킹 20위에서 살펴보면, 극단시키가 9개 작품,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9작품, 디즈니랜드 1작품, 도호 1작품임.
- 최근의 경향으로는 애니메이션에서 스피노프한 무대(테니스의 왕자님, BLEACH등)도 뮤지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 인기코믹원작의 뮤지컬로 7년 동안 통런을 해왔던 ‘테니스의 왕자님’ 은 2011년부터 새로운 연출로 세컨드 시즌을 시작.

2. 일본의 뮤지컬 컴퍼니

■ 대형 뮤지컬기업 : 극단 시키

○ 회사개요

- 극단 시키는 2011년 기준 3,785 스테이지 이상을 소화하며 연간 약 300만명을 동원. 배우 및 스태프 포함 7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매머드급 뮤지컬 기업
 - ※2009년 3월기 영업수입 228억 1,900만 엔, 종업원 211명, 자본금 4억 7,250만 엔(2006년 3월 현재)
- 극단이 설립된 것은 1953년 7월 14일. 해외뮤지컬 작품의 상연만이 아니라 창작뮤지컬도 인기가 있음. 일본에 뮤지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현재 동경, 나고야, 오사카, 삿포로에 전용 극장을 운영하며 공연을 개최하고 있음.
- 처음에는 학생 중심의 아마츄어 성격을 띠다가 점차 직업극단으로 발전하면서 1967년 시키 주식회사를 설립
- 1979년 ‘코러스 라인’을 상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메이저로 발돋움 함.

- 일본극장은 월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관행으로 인해 뮤지컬이 크게 히트해 관객이 관람을 희망하더라도 공연을 중단해야 함.
- 극단 시키는 전용극장 확보를 모색하기 시작해 1983년 텐트형식의 가설극장을 설치해 'CATS'의 롱런 공연을 감행함.
- 코러스 라인을 공연할 때까지 극단시킴의 공연횟수는 많아도 연간 19회, 평균 10회 정도였음. 하지만 'CATS'를 공연한 1983년은 707회로 크게 늘어났고 그 이후에도 전용극장이 늘면서 2002년에는 2,530회나 공연함.
- 극단 시킴을 통해 선보인 주요 작품을 열거하면 아이다, 사운드 어브 뮤직, 미녀와 야수, 피가로의 결혼, 라이온 킹, 코러스 라인, 맘마미아, 오페라의 유령 등 다수임.
- 극단 시킴은 독특한 발성법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음. 모음을 확실하게 발성하는 발성법은 무대 위에서 관객의 귀에 대사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됨.

○ 전용/상설극장

- 도쿄도 미나토구 해안에 위치한 JR히가시니혼 아트센터 시킴극장(봄), JR히가시니혼 아트센터 시킴극장(가을), JR히가시니혼 아트센터 자유극장, 도쿄도 미나토구 신바시에 있는 덴츠시킴극장(바다),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로초에 있는 세키스 하우스 뮤지컬 시어터 시킴극장(여름), 나고야시 나카구 사카에에 있는 신나고야 뮤지컬 극장,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에 위치한 오사카 시킴극장이 운영되고 있음.

○ 관련시설

- 시킴 예술센터는 2006년에 가나가와현 아오바구에 개설되어 극단을 총괄하는 시킴 주식회사의 본사 소재지이기도 함.
- 부지면적 약 17,404 평방미터, 바닥면적 약 11,742 평방미터 지하 1층과 지상 2층 구조.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되어 환경에도 배려

- 주요 설비로는 실제 무대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연습할 수 있는 대형 중형 연습장을 비롯, 다양한 크기의 연습장이 총 10개 있음.
- 개인용 연구실, 내레이션 등을 녹음하는 음향스튜디오, 의상실, 식당, 트레이닝 짐, 의무실, 마사지실, 사무공간 등이 있음.
- 대부분의 공연연습은 동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극단 시키의 중추.
- 요요기 아트리에에는 1965년 설립, 3층 건물, 약 430평방 미터로 현재도 연습장으로 사용
- 시키 연극자료센터는 나가노 오오마치시에 설립. 시키 연극자료관과 무대미술보관창고가 있음.
- 시키 연극자료관은 1996년에 시키 연극자료센터내에 만들어져 무대 모형/사진/대본/소품/의상 및 관련기록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극단 시키의 커머셜 비디오를 열람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구비되어 있음.
- 무대미술보관창고는 약 4만 평방미터의 광대한 부지에 창고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 지금까지의 극단 시키의 조명/음향기재/소품/의상 등 다양한 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음. 시키예술센터를 비롯 각지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음.

○ 신도시 공연

- 전용/상설극장 이외에 미야기현 동경 일렉트론 홀 미야기, 시즈오카시 시즈오카 시민문화회관, 히로시마현 우에노 학원홀 등에서 수주 일부터 최장 6개월 정도의 롱런 공연이 전국공연과는 별도로 신도시공연이란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관계기업

- 니혼테레비방송망은 덴츠가 운영하고 있는 전용극장 공연의 주최
- 덴츠는 동경과 오사카에 시키전용극장을 개설, 현재는 동경만 시키 전용극장을 운영
- 캐논은 스폰서이지만, 요코하마에 전용극장 ‘캐논 캣츠 시어터’ 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JR 히가시일본은 공동으로 동경도 및 요코하마에 위치한 시키전용 극장의 운영외에 동경 23구 및 요코하마에 있는 시키전용극장 및 미야기현 동경 엘레토론홀에서 공연되는 작품 및 전국 공연 가운데 센다이 지구를 제외한 도호쿠/고신에츠 지구의 티켓 판매를 담당
- 마이니치 방송은 간사이지구의 공연에서 특별히 지원
- JR 니시니혼은 공동으로 교토극장 운영외에 교토극장, 오사카 시키 극장 및 우에노 학원홀(히로시마현)에서 상연되는 작품 및 전국공연 가운데 호쿠리쿠, 히로시마 지구를 제외한 슈고쿠, 시고쿠 지구의 티켓 판매를 담당
- 슈니치신문사, 도카이텔레비방송은 나고야 공연을 주최
- JR 도카이는 신나고야 뮤지컬 극장 및 시즈오카시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작품 및 전국공연 가운데 기후, 미에 지구의 티켓 판매를 담당
- 니시니혼신문사, RKB 마이니치방송, 니시니혼 시티은행은 후쿠시마 시티극장 개설에 지원함. 현재 각각 본업에서 공연 PR등을 지원
- JR규슈는 캐널시티극장에서 공연되는 작품 및 전국공연 가운데 후쿠오카를 제외한 규슈각지의 티켓 판매를 담당



<극단시키의 대표작품 홍보포스터>

■ 대형 뮤지컬기업 : 다카라즈카 가극단

○ 회사개요

- 다카라즈카가극단은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가극단임. 한규전철의 일부분이지만, 사업운영은 별도 부서가 담당하고 있음.
- 극단원은 동사 사원으로 취급됨.
- 1914년에 첫공연을 한 이래 지금도 인기있는 미혼 여성만으로 구성된 가극단임. 현재는 꽃, 달, 눈, 별, 하늘 5팀과 팀에 속하지 않는 전과로 나누어져 있음.
- 다카라즈카 극장과 동경다카라즈카 극장을 중심으로 공연을 개최하고 있음. 또한 중규모의 다카라즈카 배우홀도 소유하고 있음. 2001년부터 극장중계 및 공연안내를 중심으로 한 전문채널 ‘TAKARAZUKA SKY STAGE’ 라는 이름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 설립당시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극’ 을 목표로 일본에서 최초로 리뷰를 상연한 극단으로 일약 유명해졌음. 현재도 건전하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중심으로 가극을 공연하고 있음. 장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극, 판타지, 그리고 SF까지 다양함.
- 무대에 서는 것은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졸업생으로 모두 미혼 여성임. 퇴단후에 재입단도 불허되며 외부 배우가 다카라즈카 공연에 출연하지도 못함.
- 또한 단원이 다카라즈카가극단 소속으로 활동중인 상태에서 외부의 무대 및 TV에 출연하는 일은 드뭄.
- 수용정원은 2000명 이상의 대규모 극장으로 항상 공연하며 무대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멀리서도 배우의 표정을 알 수 있도록 커다란 눈의 눈썹, 두터운 흰색화장, 인상적인 아이라인 등 대부분의 배우가 화려한 분장을 하고 있음.
- 단원이 모두 여성이라 남자역도 여성이 연기함. 대체로 키를 기준으로 남자역을 선정함. 설립 당시는 여성역에 인기가 모였으나 현재는 남자역이 훨씬 인기가 높음.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무대 구성 등도 남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짐.

- 단원은 가극단 소속의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 예과 1년, 본과 1년 합계 2년간 교육을 받아야 함. 또한 다카라즈카가극단 입단 조건도 음악학교의 졸업생만 가능함.
- 정년은 1972년부터 57세 정년이 도입되어 현재는 만 60세 탄생일까지 연장되었음.
- 1977년 입단생부터 ‘결혼적령기 정년제도’가 도입됨. 이로써 사원이었던 단원은 일정한 학년이 되면 탤런트로써 새로운 개별계약을 체결함. 이전에는 입단 7년째가 탤런트 계약시기였으나 2007년 입단생부터는 입단 6년째로 계약시기가 앞당겨졌음.



<다카라즈카 가극단 공연모습>

■ 대형 뮤지컬기업 : 도호

○ 회사개요

- 도호주식회사는 영화/연극의 제작/배급 및 흥행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임. 1932년에 설립되었으며 매출은 2012년 2월 현재 그룹전체가 1,813억 엔, 종업원은 3,171명임.
- 1990년대에 들어와 자사 영화제작을 크게 줄이고 주로 방송국 및 외부 프로덕션이 제작한 영화를 배급해 성공을 거둠.

- 2000년 이후는 워너 마이클 시네마스가 우위에 있었던 시네마 콤플렉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2003년 버진 시네마스 재팬주식회사를 매수해 그룹 기업의 스크린 수는 1위를 차지함.
- 그 이후에도 일본영화계, 흥행업계에 부동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제작사(TV방송국이 대부분)도 돈과 공을 들인 자신작은 흥행에 강한 도호에 배급위탁하게 되면서 라이벌인 도에이와 쇼치쿠를 크게 따돌렸음.
- 도호 뮤직에서 뮤지컬 제작 및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며 뮤지컬 아카데미도 산하에 두고 있음.
- 도호뮤직은 본래의 음악관련 업무 뿐만아니라 국내외 연극, 해외뮤지컬의 공연권 및 흥행 등을 담당.
- 도호뮤지컬 아카데미는 뮤지컬 배우를 양성하기 위해 2006년에 개설.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 ‘엘리자베스’ 등 수많은 걸작 뮤지컬을 선보여온 도호가 운영
- 도호 뮤지컬로는 현재 ‘레미제라블’ 이 인기리에 공연중임(2011년 16.5만 명 동원).
- 이전에는 하세가와 가즈오를 중심으로 한 ‘도호 가부키’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뮤지컬 상업연극을 주로 제작/프로모션하고 있음.



<도호의 레미제라블>

■ 중소 뮤지컬 컴퍼니

○ OSK 일본가극단

- OSK 일본가극단은 다카라즈카 극단, 쇼치쿠 가극단과 더불어 3대 소녀 가극의 하나임. 1922년 4월 쇼치쿠 악극부(전신)로 설립되어 2003년 5월에 한때 해산했으나 이듬해 2004년 4월에는 극단원의 유지를 받들어 재결성됨.
- OSK란 이전 극단명이었던 오사카 쇼치쿠가극단(Osaka Schochiku Kagekidan)을 줄여 붙인 말임.
- 미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Revue극단. 남자역과 여자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생년월일과 본명은 비공개가 원칙임.
- 이전 다카라즈카와는 간사이 지방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로 ‘노래는 다카라즈카, 댄스는 OSK’ 로 불리웠음.
- 하지만, 쇼치쿠 가극단(SKD)이 동경을 본거지로 만들어져 OSK는 오사카를 거점으로 활동. 이로 인해 OSK는 오랫동안 동경공연이 불가능. 그 동안 다카라즈카는 동경 다카라즈카 극장을 만들고 상설 공연을 추진. 이로 인해 OSK와 다카라즈카 극단과의 격차는 인기 및 지명도에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졌음.
- 현재는 오사카 쇼치쿠좌와 교토 미나미좌 공연을 중심으로 후쿠이현 에치젠시의 다케후기쿠 인형회장 등의 소중극장 공연/이벤트출연/디너쇼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 쇼치쿠좌, 미나미좌 공연은 2부 구성의 Revue로 되어 있으며 제 1부는 일본, 제 2부는 서양 작품 총 약 2시간의 길이임.
- 이전부터 ‘댄스의 OSK’ 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빠른 스피드로 높게 다리를 들어올리는 라인 댄스는 극단의 상징이 됨.
- Revue의 마지막에 핑크 우산을 돌리면서 테마송 ‘벚꽃피는 나라’를 부르는 것이 정착됨.
- 입단연차는 관계없으며 극단원 전원에 서열이 있음. 베테랑 조역을 제외하고 서열 최상위는 남자역이 톱스타로 불리며 쇼치쿠좌, 미나미좌 등의 메인공연에서 주연을 맡음. 여자역의 경우는 서열상위의 여자역 몇 명이 복수 또는 교대로 히로인을 맡음.

- OSK는 처음에는 쇼치쿠, 1971년부터는 긴데츠의 자회사를 거쳐 2003년 5월 마지막 공연을 하고 해산됨.
- 이어 2004년 4월 ‘NewOSK일본가극단’ 이란 이름으로 재출발. 2009년 주식회사 OSK일본가극단으로 독립해서 현재까지 활동중임.

○ 쇼치쿠 가극단

- 쇼치쿠 가극단은 다카라즈카 가극단, OSK일본가극단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3대소녀가극의 하나로 이전에 존재했던 극단임.
- SKD란 Shochiku Kageki Dan의 이니셜을 딴 호칭임.
- 동경을 대표하는 Revue를 주로 한 가극단이며 아사쿠사/국제극장을 본거지로 ‘서쪽의 다카라즈카, 동쪽의 쇼치쿠’ 라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음.
- 1928년 도쿄 쇼치쿠 악극부로 발족. 동년 쇼치쿠 악극부(후에 OSK가극단)의 동경 공연에의 응원 출연을 계기로 이듬해 1929년 11월부터 단독 활동을 개시함.
- 전후에 쇼치쿠 가극단으로 개칭한 후에는 국제극장의 무대를 최대한 이용한 ‘야타이구즈시’ (무대 건물 붕괴), 15간의 무대에 일렬로 늘어선 라인댄스 ‘아토믹 걸스’, 정예단원 8명으로 구성된 요염하고 화려한 댄스 ‘에잇 피쳐스’, 진짜 물을 대량으로 사용한 거대 폭포 세트 등의 무대는 동경의 명물이 되기도 함.
- 정기공연의 일부는 반드시 일본무용 및 일본지역의 축제를 피쳐한 무대가 만들어져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반응이 좋았음.
- 그 이후에 오락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점점더 쇠퇴. 1982년에는 국제극장이 폐쇄되어 본거지를 잃었음. 그 이후 1990년을 마지막으로 공연을 중단하고 뮤지컬 극단으로 전환했으나 1996년에 돌연 해산했음.
- 해산 1년후인 1997년에는 ‘바라에티 SKD’ 가 조직되어 Revue의 계승과 신인육성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다카라즈카 및 OSK와는 달리 공식 프로필에 본명을 게재

○ 와라비좌

- 와라비좌는 일본전통예능을 기반으로 하는 점이 특징임. 1948년 8월 설립, 1971년 주식회사 와라비좌로 전환. 그 후 극단/극장경영외에 온천, 호텔사업, 로컬맥주제조판매 등 다각경영을 실시
- 2006년 4월에 아카타현 다자와코 예술촌에 본거지를 옮김. 극단원은 약 200명.
- 본거지에 와라비극장을 운영하며 창작뮤지컬 공연을 연간 250 스테이지 소화하며 7개의 공연팀이 일본 국내, 해외에서 연간 약 1,200회 공연을 개최함.
- 에히메 도온시에도 ‘아카짱 극장’ 이란 거점 극장을 소유하며 2009년에는 연간 25만명의 관객을 동원함.
- 일본에서는 극단시키 및 다카라즈카극단 다음으로 규모가 큰 극단임. 극단 병설의 양성소에는 2년간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음.
- 일본의 전통예능을 중시하고 민요, 민속무용, 가무 등을 장기로 하는 한편, 창작뮤지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지방공연 및 학교예술 감상회, 전통예능중심의 소규모 공연, 다양한 악기를 이용한 라이브, 각종 워크숍 등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연을 개최하고 있음. 고정팬이 많음.

○ 극단 스페이스 서커스

- 1974년에 설립된 일본의 극단으로 록 뮤지컬 전문. 음량이 큰 생연주, 완급을 활용한 격렬한 움직임, 그리고 환상적인 조어로 구성된 대사가 특징으로 정치적 메시미성이 강한 작품이 많음. 1978년 해산.

○ 동경 아동극장

- 어린이용 ‘인형극’ (마스크 플레이 뮤지컬)을 기획/제작/공연하는 극단으로 주식회사임. 1998년 폐업함.
- 1960년대 연출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며 공연을 계속, 관객이 감소한 것이 폐업의 원인.

- 1969년부터 1998년까지 운영되었던 극단임. 현재 연극관계자 스태프 가운데 동극단 출신자가 매우 많음. 등용문과 같은 역할을 했음.

○ R컴퍼니

- 주식회사 휴먼 디자인이 운영하는 일본의 뮤지컬 극단. 주식회사 휴먼디자인에 의해 2004년 4월 결성. 휴먼디자인이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했던 극단 ‘음악좌’의 작품군 및 집단창작 등의 노하우, 및 ‘음악좌 뮤지컬’ 브랜드를 계승하고 있음.
- ‘R’이란 Revolution, Relation, Responsible, Run, Roots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희곡 단계부터 오리지널 창작 뮤지컬을 제공해왔으며 대부분의 작품은 ‘생과 사’를 테마로 하고 있음.
- 2005년 첫 작품공연으로 ‘21세기 마드모아젤 모차르트’를 공연.

○ 음악좌

- 1977년에 결성되어 1996년까지 활동한 일본의 뮤지컬 극단임.
- 연극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작품을 생연주로 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됨.
- 창작뮤지컬을 만들면서 수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법인세법 위반혐의로 체포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해산됨.
- 음악좌는 집단창작시스템에 의한 뮤지컬 공연이 커다란 특징이었음. 또한 재공연할 때마다 각본, 연출, 음악, 안무 등을 모두 새로 고치고 매회 캐스팅 오디션을 실시하는 등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했음.
- 음악좌는 해산했지만, 그 이후에도 운영모체인 휴먼디자인은 음악좌 뮤지컬이란 공연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해왔고 현재도 R컴퍼니에 의한 공연은 음악좌 뮤지컬로 인식하고 있음.

○ 후루사토 캐러반

- 후루사토 캐러반은 이전 활동했던 일본의 뮤지컬 극단. 1983년 토이츠극장에서 독립한 형태로 극단 캐러반이 설립됨. 뮤지컬 중심의 지

방공연을 자주 개최하며 뮤지컬을 통한 마을부흥 및 자체 뮤지컬 스쿨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독자적인 네트워크 및 응원단격인 지방실행위원회를 조직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공연회수는 물론 동원관객수도 10여년 동안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음.
- 1990년대이후는 미일 합작의 뮤지컬 공연 개최, 바르셀로나 올림픽 및 중일국교정상화기념 이벤트 참가, 1999년부터는 자연환경 이벤트 등을 기획하는 등 무대예술만이 아니라 폭넓은 사회활동을 전개했었음.
- 지방공연을 주로 하는 후루사토 캐러반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직면하게 됨. 이로 인해 기업 스폰서 등을 확보하는 등 경영에도 힘썼으나 금융위기 이후 기업스폰서 철수 등이 이어지면서 2010년 2월 도산했음. 당시부채는 6억 4700만 엔이라고 보도됨.
- 도산이후 2010년 4월 ‘이시즈카 사무소·신생 후루캐라’ 를 설립. 극단원은 약 3분의 1로 감소했지만, 후루사토캐러반의 작품 및 신작을 공연하고 있음.

○ 극단 비행선

- 주식회사 극단비행선은 어린이용 인형극을 기획제작하는 극단임.
- 1996년 뮤지컬 패밀리로서 설립. 최초 공연은 세 마리의 새끼돼지였음. 1975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 인형배우 양성소의 개설, 국제장학회의 설립, 수많은 해외공연을 성공시키는 등 꾸준하게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대표 작품으로는 알라딘과 마법의 램프, 피터팬, 신데렐라, 백성공주와 일곱명의 난장이, 피노키오 등임.

○ 노시로 뮤지컬

- 일본의 시민참가형 극단. 1980년부터 노시로시에서 매년 공연.
- 노시로시 예술문화협회, 노시로뮤지컬 제작위원회 주최. 시문화개관의 완성을 기념해 1980년에 시작되어 2011년 30회를 맞이함. 각본,

스태프 등 모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뮤지컬로 노시로역 민화, 역사적 사건, 사회문제 등을 테마로 매년 공연을 개최함. 노시로시에서는 인기가 높음.

○ 극단 I' M

- 극단 I' M이란 센다이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일본 뮤지컬 극단의 하나
- 설립당시는 S.P.A.C(삿포로 퍼포밍 아트 클럽)이란 이름이었지만, 몇 번의 개명을 거쳐 현재에 이름.
- 1996년 당시 삿포로시 고등전문학교 선생님이었던 미키 히로가즈(현 대표)는 학생들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 설립당시부터 창작작품을 공연해왔고 삿포로를 중심으로 홋카이도 내외의 공연 및 워크숍 개최, 퍼포먼스 및 디자인 워크를 위탁받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음.
- 지방에서의 문화교류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워크숍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시민참가형 방식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며 무대를 통해 지역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음.

○ 논논발레 스튜디오

-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에 있는 어린이 뮤지컬 극단임. 1975년 설립.
- 대표자인 오카다야스코는 다카라즈카가극단 출신. 퇴단후 논논발레 스튜디오를 설립. 패밀리 뮤지컬에 힘을 기울이며 격년으로 주로 다카라즈카 배우홀에서 창작뮤지컬을 발표. 지역 어린이들에게 발레와 노래를 가르치면서 함께 뮤지컬을 만들고 있음.
- 논논발레 스튜디오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원 등을 배출하기도 했음.

○ 아르고 뮤지컬

- 아르고 뮤지컬은 싱어송 라이터인 오구라게이가 기획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트라이앵글에 의해 1987년부터 2008년에 걸쳐 공연한 주니어 뮤지컬임.
- 1987년 초연이래 1년에 1작품씩 공연. 기본적으로 창작 뮤지컬로 매

년 다른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 특징임.

- 기본적으로는 여름방학기간에 전국의 주요도시를 돌며 공연을 했었음.
- 출연자는 대체로 2~3명의 성인배우가 조역을 맡고 메인 캐스팅은 초등학교생부터 고교생정도의 소년 소녀임.
- 대부분 소년소녀로 구성된 상업뮤지컬로서는 전국규모로 공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유일무이한 극단이었음. 대형 뮤지컬 극단의 배우를 다수 배출했음.
- 2009년 4월 돌연 무기한 공연중단이 발표되어 2008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아르고 뮤지컬은 볼 수 없게 되었음.

○ 극단 아라무니

- 극단아 라무니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일본의 뮤지컬 극단. 단원은 군마현립 오오타 여자고교와 마에바시 여자고교 음악부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2~3월에 군마현내 극장에서 뮤지컬 작품의 무료 공연을 실시하고 있음. 2000년에 설립.
- 극단명 아라무니는 ‘Alumnae’ 에서 온 말로 졸업한 여학생, 동창생이란 의미를 가짐.
- 극단 아라무니 공연은 무료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공연을 보러온 일반관객으로부터의 모금 및 현내외 기업 및 지원 지원자에 의한 협찬금 등에 의해 이듬해 무대제작을 위한 자금의 일부가 마련됨.
-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작품을 매년 공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뮤지컬의 훌륭함을 알리고 싶은’ 모토 하에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 뮤지컬 컴퍼니 이츠 포리즈

- 뮤지컬 컴퍼니 이츠포리즈는 1977년에 작곡가 이즈미 다쿠가 설립한 뮤지컬 극단임. 록본기 소극장 ‘아틀리에 폰테누’ 를 본거지로 했었으나 아틀리에 폰테누 폐관에 따라 2012년 7월에 도쿄도 다이토구로 이전.

○ 이마진 뮤지컬

- 이마진 뮤지컬은 패밀리 뮤지컬 등을 공연하고 있는 제작사임. 도쿄도 미타카시에 소재함.
- 1985년에 ‘소공녀 세일러’ 뮤지컬을 공연한 것이 최초임. 이후 매년 패밀리 뮤지컬을 상연하고 있음. ‘알프스 소녀 하이디’ 등 세계 명작극장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 많으며 특히 1991년 초연한 ‘트랩 일가 이야기’ 는 10회 이상 공연함.

○ 극단 시어터 재팬

- 극단시어터재팬은 동경도 이타바시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뮤지컬극단
- 2000년에 연출가 미우라 가츠야와 배우 나츠 유스케에 의해 설립됨. 오리지널 사회파 뮤지컬을 중심으로 판타지, 동화 등 다양한 작품을 공연하고 있음.
- 또한 활동도 본공연을 중심으로 지방공연, 이벤트 공연, 패밀리 푸치 뮤지컬 등 다양함.

○ 고토보시

- 고토보시는 여성 6인조의 뮤지컬 유닛. 2008년 11월에 결성됨. 2009년 11월 유닛명을 고토보시에서 영어표기인 ‘KOTO☆BOSHI’ 로 표기. 현재 다양한 이벤트 및 라이브 활동, 단독 라이브 등으로 활동
- 기획, 구성, 연출, 안무를 모두 자체적으로 만들며 코미디 터치의 뮤지컬 엔터테인먼트 쇼를 전개함. 테마는 ‘NO SMILE NO LIFE’ 임.

○ 미나미 아오야마 소녀가극단

- 11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녀 만으로 구성된 극단이나 2001년부터 활동을 중단한 상태임.
- 1990년에 연예기획사인 스페이스 크라프트의 프로젝트로서 개시. 방송국 TBS와 음반사인 판하우스(현 BMG JAPAN)가 나중에 프로젝트

에 가담하면서 극단이 발족.

- 하지만 스페이스 크라프트 단독 프로젝트가 된 이후 맴파워 부족이 걸림돌이 되어 현재는 공연을 중단

○ 죠즈컴퍼니

- 무대제작을 목적으로 1995년에 법인을 설립한 뮤지컬 컴퍼니임. 1995년에 첫 공연으로 프로댄서 만으로 구성된 댄스 뮤지컬 ‘콜미 댄서’를 발표. 이러한 노선이 평가를 받아 4년 동안 시리즈로 공연함.
- 1999년에 시어터 산모르 극장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처음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작품 ‘코코 스마일’을 공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그 이후에 시리즈화되어 시어터 산모르, 신국립극장, 젠노사이 홀스페이스 제로 등에서 공연

○ 가극★스타 비쥬

- 가극★스타 비쥬는 일본의 극단으로 OSK일본가극단 톱스타 출신 배우 나츠키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극형태의 유니트.
- 여성만의 출연자로 인해 ‘남자역’이 존재함.
- 보편적인 사랑 및 존재가치등 현실을 사는 등신대의 인기심리를 표현하려고 결성되었음. 틀에 구속되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의 연극형태에 도전하고 있음. 가극★레쥬의 무대는 ‘진화한 가극’이란 평가를 받고 있음.
- 각본 및 연출은 아츠다카가 담당. 나츠키를 중심으로 OSK, 다카라즈카, 극단 시키 출신자 등 실력자가 기획마다 캐스팅됨.
- 여성만의 ‘가극’이며 가부키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독특한 것으로 노래, 댄스 등 예능 수준도 높아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기타 주요 뮤지컬 기획 관련업체

○ 아뮤즈

- 아뮤즈는 1977년에 설립된 뮤지션을 중심으로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형연예프로덕션이자, TV프로그램 및 영화 등도 제작하고 있

음.

- 아뮤즈 그룹의 2009년 3월기 매출은 그룹 전체가 약 322억 엔이며 종업원은 약 264명임.
-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뮤지션 및 아이돌 등을 중심으로 프로덕션을 운영해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배우 부문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사전올스타즈와 후쿠야마 마사하루, Perfume 등의 유명 뮤지션이 소속되어 있음.
- 1990년대부터 한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쉬리’ 및 ‘JSA’ 등을 수입하는 등 한국과의 콘텐츠비즈니스에 적극적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최초로 도쿄 롯본기에 있는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에서 한국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1년 동안 총 10편을 공연할 예정임.

○ 네르케 플래닝

- 무대 프로듀스, 영화제작, 성우 캐스팅, 이벤트 기획을 주업으로 하는 영상관련회사임.
- 무대제작을 중심으로 소극장 공연의 제작업무를 위탁받아 공연을 개최하고 있음. 제작예산관리, 티켓팅, 홍보, 연습장 섭외등 이른바 ‘제작’ 을 비즈니스로 승화시킴.
- 네르케플래닝은 애니메이션 작품에도 ‘캐스팅협력’ 으로 많은 작품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음. 연극의 분업 및 다각경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으로 일본극단협의회 및 일본배우연합 등에는 가맹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동종업체와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프로듀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가령 애니메이션 성우의 경우 협회의 출연료 랭크에 구속되지 않고 낮은 개런티로 캐스팅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성우가 모이지 않아 충분한 캐스팅이 되지 않은 단점도 있음.
- 네르케 플래닝은 만화원작의 ‘테니스의 왕자’ 를 뮤지컬화해 크게

히트시킴. 현재는 ‘흑집사’를 공연중임.

- 한국관련 작품으로는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과 ‘드림 하이’를 원작으로 일본배우가 출연하는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함.

○ 호리프로

- 1960년에 설립된 일본의 대형 연예프로덕션임. 연예프로덕션 경영의 건전화를 중시해 1989년 업계 최초로 주식을 공개하고 동경증권거래소에도 상장함. 하지만, 경영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2011년에 상장을 폐지함.
- 2011년 3월기 매출은 그룹 전체 약 210억 엔 정도이며 종업원은 424명.
- 와다아키코, 시마부키 사토시, 마츠야마 겐이치, 후카다 교코 등이 소속되어 있음.
- 소속연예인은 매니지먼트 계약형태의 프로덕션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급료제이며 사무소가 탤런트를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호리프로는 공연사업부에서 다수의 뮤지컬 제작에 참여하고 있음. 공연사업부는 연극 및 뮤지컬 기획제작, 공연 개최 등, 고전부터 신작까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있음. 1981년 뮤지컬 피터팬 공연은 폭발적인 인기로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았음.
- ‘신독환(身毒丸)’, ‘기적의 사람’, ‘무사시’ 등과 같은 스트레이트 플레이(straight play)의 히트로 이어졌으며 일본에서 ‘프로듀서스’, ‘헤어 스프레이’ 등의 대형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도 개최했음.
- 해외에서도 ‘근대능악집’, ‘맥베드’, ‘코리오레이나스’ 등의 런던 및 뉴욕 공연을 성공시켰고 세계 최고봉이라는 영국 로열 섹스피어 컴퍼니와 ‘리어왕’을 공동제작하기도 했음.
- 호리프로는 온라인 티켓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브로드웨이 뮤지컬 및 화제의 공연등 티켓 정보부터 선행발매, 일반구입까지 취급.

○ 쇼치쿠

- 창업은 1895년이며 설립은 1920년. 일본의 영화/연극/의 제작/흥행/배급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임. 가부키의 흥행은 거의 쇼치쿠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쇼치쿠로는 영화사로는 도호, 도에이와 함께 3대 영화사임.
- 2012년 2월기 현재 매출은 그룹 전체 756억 엔이며 종업원은 1,227명.
- 수많은 가부키 배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기부키 제작 및 흥행을 거의 독점하고 있음. 국립극장에서의 기부키 공연도 쇼치쿠의 협력없이 성립이 불가능함.
- 기부키좌/미나미좌/오사카 쇼치쿠좌 등 산하 극장에서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쇼치쿠 대가부키’ 라는 이름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국립극장공연에도 협력하고 있음.
- 가극과 관련 쇼치쿠 가극단은 동경을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했으나 쇠퇴하고 1996년에 해산. 2004년 이후 OSK가 쇼치쿠 산하의 극장에서 정기공연을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한국관련 작품으로는 ‘궁’, ‘미녀는 괴로워’, ‘런투유’ 등을 공연한 바 있음.

○ 쿠오라스

- 쿠오라스는 후지 산케이 그룹의 광고대리점으로 2007년 10월에 설립.
- 자본금은 약 3.6억 엔이며 종업원은 268명에 이름.
- 업무는 광고대리점 업무, 출판업무, 매니지먼트 업무, 프로그램 제작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제작에도 참가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에서는 후지TV계열이외의 TV도쿄 및 요미우라 TV, TBS TV 및 마이니치방송의 심야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참여
- 쿠오라스는 2012년에 ‘잭 더 리퍼’ 를 금년에는 ‘삼총사’ 의 일본 공연에 참여하고 있음.

3. K-MUSICAL 동향

■ K-뮤지컬 동향

○ K-뮤지컬 일본진출 연혁

- 그 동안 일본에 2002년에 허준호 주연의 ‘갬블러’와 2006년의 ‘겨울연가’의 뮤지컬, 조승우 주연의 ‘지킬과 하이드’ 등의 작품이 일본에서 공연되었음³⁾.
- 그 이후, 2011년에 드라마 ‘궁’의 인기를 토대로 뮤지컬 ‘궁’과 일본원작의 ‘미녀는 괴로워’가 공연되었음.
- 뮤지컬 ‘궁’은 2011년 6월 일본 교토 미나미좌에서 SS501의 김규종 주연으로 공연. 12월 공연에는 초신성의 성모 합류해 동경국제포럼 C홀(1,500석 규모)에서 공연
- 2012년 9월에도 동경의 유포토(1,800석 규모)에서 공연. 남자주인공 신역에 초신성의 성모와 수퍼주니어의 강인의 더블 캐스팅
-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는 ‘카라’의 박규리와 초신성의 성재, 바다, 오만석, 이종혁, 김태균 등의 출연으로 2011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 평균 좌석점유율 90% 이상의 관객을 동원.
- 2012년에는 ‘빨래’, ‘쓰릴미’, ‘궁’, ‘잭 더 리퍼’, ‘RUN TO YOU’, ‘광화문 연가’ 등이 공연되었음.
- ‘빨래’는 한류스타의 의존도를 극복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인기 뮤지컬 빨래는 일본에 라이선스 수출되어 일본인 배우 출연에 추민주 연출로 2월 동경/오사카 공연, 5월과 8월 동경 앙콜 공연함.

3) 중앙일보 2006년 3월 15일자



<일본판 뮤지컬 빨래 홍보 포스터>

- 쓰릴미는 한국의 뮤지컬 헤븐과 일본의 연예프로덕션 호리프로가 공동제작 형태로 공연함. 2012년 7월에 도쿄 은하극장에서 한국 배우와 일본배우가 함께 출연, 사전에 완매될 정도로 인기. 2013년 3월에도 공연.
- 연출, 무대, 조명등 제작스태프는 일본, 한국은 배우와 피아니스트가 참가해 단계적 프로덕션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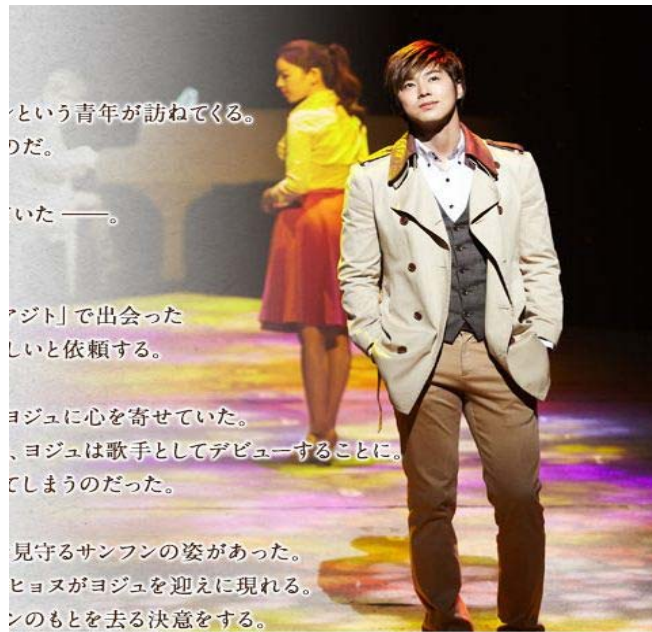


<한일공동제작 쓰릴미의 홍보포스터>

- 쓰릴미는 해외라이선스 뮤지컬의 한국 로컬라이제이션을 거쳐 2011년 일본 트라이아웃 공연, 2012년 일본 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한 케이스임.

- ※이유리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청강문화산업대학 뮤지컬 스쿨 교수 분석
- ‘잭 더 리퍼’ 은 초연기획부터 일본진출을 목표로 2년 동안 약 4만 명 이상의 일본인 관객을 동원했음. 일본의 쿠오라스와 5대 5의 지분투자방식으로 공동제작해서 실현됨.
 - 안재욱, 유준상, 엄기준, 수퍼주니어의 성민, FTIsland의 송승현 등의 출연으로 9월 동경에서 공연 스탠딩석까지 완매될 정도로 성과.
 - 2012년 10월 오사카에서 쇼치쿠좌에서 평균객석 만석율 90%를 마크한 ‘RUN TO YOU’ 는 초신성 멤버만이 아니라 조연배우까지 악수회를 열 정도로 뜨거웠음.
 - 한편 일본에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드림하이’ 처럼 뮤지컬화권을 구매해 일본에서 제작해 공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7월에는 일본출판사 신쇼칸에서 ‘한국 뮤지컬 가이드’란 서적이 발매됨.
 -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 뮤지컬 관람 투어 및 입장티켓 구매 대행도 해주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음.
 - 일본의 월간지 ‘뮤지컬’ 이 선정한 2012년 뮤지컬 베스트 10에서 한국의 ‘빨래’ 가 6위를 차지함.
 - 2013년에 들어와 한국의 뮤지컬이 한층 주목받고 있음. 특히 창작뮤지컬인 ‘광화문 연가’ 는 오사카의 신가부키좌에 이어 동경의 메이지좌에서 금년 1월초부터 공연되어 커다란 주목을 받았음.
 - 2013년 1월 도쿄 메이지좌에서 공연된 ‘광화문 연가’ 는 동방신기의 윤호가 출연하는 등 화제성을 뿌리면서 관객 동원에 성공했음.
 - 광화문 연가는 일본으로부터 MG는 물론 로열티로 공연매출의 13%를 받고 공연했음⁴⁾.

4) 중앙일보 2012년 11월 26일자



<광화문 연가 오사카 공연>

- 아울러 일본업체 ‘피아’ 기획으로 한국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도쿄의 ACT시어터에서 공연하였으며 그밖에도 도쿄 록본기에 위치한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에서 한국뮤지컬을 10편정도 공연중임.
- 뿐만 아니라 한국의 뮤지컬 배우와 일본 뮤지컬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콘서트 ‘K-MUSICAL STARS CONCERT 2013’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한국 뮤지컬 배우의 높은 인기를 토대로 한 이벤트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일부 뮤지컬 배우의 팬클럽도 만들어지고 있음.
- 다만 일부 유명 한류스타가 출연한 작품만이 한류팬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 뮤지컬에 대한 인지도 및 브랜드 파워는 낮은 편임.
- 한류스타가 출연한 작품에만 관객이 몰리고 정통 뮤지컬 배우가 출연한 작품은 한산하는 등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짐.
- 한국 뮤지컬의 매력이 일본사회에 널리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본사회에서 집중력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진출노력이 필요할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좋은 뮤지컬을 만드는 것임. 그 이후에 이것을 제대로 된 비즈니스 라인을 통해 일본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K-POP에 이은 또 하나의 장르로써 정착될 가능성은 충분함.

표 1 2012년 한국 뮤지컬 일본진출 동향

공연명	제작사	공연시기	극장	진출형태
햄릿	한국:EMK 뮤지컬 컴퍼니 /테아뜨르 일본 : 도호	2.1~22	도쿄 긴자시 어터 크리에	· 체코 원작을 한국에서 로컬라이즈해 라이선스 판매<각본, 악, 무대, 의상, 댄스> · 이노우에 요시오 주연, 국립극장 구리야마 다미야 연출가
빨래	한국:명랑 씨어터 수박 일본:퓨어마리	2.4~16 2.17~18 5.11~20 8.22~27	도쿄 미츠코시 오사카 산케이 도쿄 하이유좌 도쿄 미츠코시	· 2012년 퓨어 마리가 라이선스 구입. · 추민주가 일본인 배우와 함께 일본공연 연출
커피 프린스 1호점	한국:CJE&M 일본:네르케 플래닝 글로벌	4.13~21 5.10~13	도쿄아오야마극장 오사카	· 네르케플래닝글로벌과 CJE&M 공동제작, 일본의 유명배우 출연한 일본어판 제작의 로컬라이전략 사례
궁	한국:그룹 에이트 일본:아이맥스	9.1~13	도쿄 유포토	· 한국제작, 일본기획으로 한국어 공연 일본투어방식.
쓰릴미	한국:뮤지컬 헤븐, CJE&M 일본:호리프로	7.15~29	도쿄 은하극장	· 일본측이 라이선스 구입 및 일본어, 한국어 공연/연출 및 제작, 마케팅은 일본. 배우와 피아니스트는 한국
RUN TO YOU	한국:CJE&M 일본:쇼치쿠	10.8~11.4	오사카쇼치쿠좌	· 한국제작, 일본기획으로 한국어 공연 일본투어방식
잭 더 리퍼	한국:엠뮤지컬아트 일본:쿠오리스	9.16~10.8	도쿄아오야마	· 한일공동제작으로 한국어 공연 일본투어 방식
광화문 연가	한국:(주)광화문연가 일본:신가부기좌, 요미우리방송	11.10~12.2	오사카신가부기좌	· 한국제작, 일본기획으로 한국어 공연 일본투어방식

※출처 이유리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청강문화산업대학 뮤지컬 스쿨 교수 “한국뮤지컬의 일본진출상황과 발전방안”, 「한일문화콘텐츠산업포럼」 2013년 4월 25일

○ 한국 뮤지컬의 교두보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

-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에서 공연되는 작품을 포함 금년에는 최소 16편 이상의 뮤지컬이 일본에서 공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2년도 보다 늘어난 수치로 추정됨.
-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가 금년 4월 25일부터 1년 예정으로 한국 뮤지컬을 공연함. 이전까지 드문드문 공연되었으나 이처럼 교두보가 마련된 것은 처음임.

- 도쿄의 록본기에 자리잡은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 (AMT)는 이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퍼포먼스인 ‘블루맨’ 이 공연하던 유서깊은 곳임.
- 금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년 동안, 총 10편의 한국 창작 뮤지컬을 상연함. 기획 및 제작은 어뮤즈, 주최는 TV아사히, 아뮤즈, 극장주인 트릭스타엔터테인먼트임.

【 표 2 】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 공연 작품 리스트

타이틀	공연기간	비고
카페인	4월 25일~5월 19일	총 28공연
싱글즈	5월 24일~	일본소설이 원작
풍월주	6월 21일~	일본관객 및 리피터가 많음
형제는 용감했다	7월 26일~	더 뮤지컬 어워드 베스트 소극장 베스트 뮤지컬상 수상
뮤직인마이하트	9월 6일~	2005년 초연, 현재도 변함없는 관객
김종욱 찾기	10월 4일~	국내에서 30만명 이상 동원
당신이 잠든 사이	미정	2006년 뮤지컬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 수상
미남이시네요	미정	드라마가 원작
.....	미정	

출처 : 아뮤즈 2013년 3월 7일 보도자료



<현재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에서 공연중인 카페인>